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전도연과 김고은이 10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나 강렬한 스릴러물을 선보인다.

5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자백의 대가'는 남편을 죽인 용의자로 몰린 '윤수'(전도연 분)와 마녀로 불리는 의문의 인물 '모은'(김고은 분), 비밀 많은 두 사람 사이에서 자백을 대가로 한 위험한 거래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전도연과 김고은이 2015년 개봉작 영화 '협녀:칼의 기억' 이후 10년 만에 만나 호흡을 맞췄다.

전도연은 3일 오후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에는 제가 김고은에게 작게나마 의지가 됐다면 이번엔 제가 의지한 것 같다"며 "김고은이 배우로서 너무 성장해 저만 성장이 멈춰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다"고 재회 소감을 밝혔다.

김고은은 "사실 사석에서 종종 만났지만 작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기쁘고 반가웠다"며 "'협녀' 때는 밤에도 선배님한테 무작정 전화하면서 일방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선배님이 나를 든든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십년만의 재회... 전도연 X 김고은
위험한 거래가 시작된다

전도연 "10년 전 의지됐다면...이번엔 의지하며 촬영"

김고은 "든든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김고은은 이번 역할을 위해 삭발에 준하는 짧은 헤어스타일로 파격 변신을 시도했다. 전도연 역시 히피풍 헤어스타일에 몸 곳곳에 문신까지 새기며 연기 열정을 불살랐다.

공개된 보도스틸에서도 두 배우의 파격적인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하루아침에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윤수'가 죄수복을 입고 절박하게 소리치는 모습과 사건이 일어난 범죄 현장에서 있는 장면은 그의 결백과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이에 반해 표정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아 속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운 '모은'은 법정과 취조실에서 변함없는 무표정을 유지해 정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윤수'와 교도소에서 마주한 '모은'은 그에게 자백을 조건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한다.

과연 '윤수'가 그 거래를 받아들일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기자들 사이에서 마주 보고 있는 '윤수'와 '모은'의 스틸은 자백을 대가로 위험한 거래를 선택한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연출을 맡은 이정호 PD는 "스릴러물은 첫 도전이라 긴장감을 어떻게 계속 가져갈지 고민했다"며 "시청자들이 누가 진짜 범인인지 꼭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고, 반전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노성수 기자/사진=넷플릭스

절제된 카리스마

배우 이세영 프로필 사진 공개
세련미 조화 이룬 비주얼 과시

배우 이세영이 다양한 분위기의 사진 속에서 매혹적인 비주얼을 과시했다.

이세영은 3일 소속사 판타지오를 통해 절제된 카리스마와 세련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5가지 콘셉트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세영은 검정과 회색 터틀넥을 입고 포근한 겨울 느낌을 전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검정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압도하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가 가진 도회적 분위기를 한층 배가시켰다. 아울러 청재킷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멋을 발산하는가 하면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매치해 다양한 매력을 뽐냈다.

이세영은 사극부터 현대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믿고 보는 배우'로 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로맨스 판타지 '재혼 황후'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노성수 기자/사진=판타지오



감각적인 비주얼

임시완 첫 미니앨범 '더 리즌'
섬세한 감성 티저 이미지 공개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배우 임시완이 솔로 아티스트로 첫발을 내디딘다.

임시완은 5일 오후 6시 각종 음악사이트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더 리즌(The Reason)'을 공개한다. 신보 '더 리즌'은 동명의 타이틀곡을 포함해 섬세한 감성을 그린 총 5곡이 수록돼 있다.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임시완의 음악적 취향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선 임시완의 감각적인 비주얼을 담아내 시선을 집중시켰다.

도회적 매력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한 무드까지 극과 극의 콘셉트를 완벽하게 소화해 '솔로 아티스트'로서 보여 줄 새로운 면모에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임시완은 인터뷰 티저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시원하다, 청량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성수 기자/사진=SM엔터테인먼트